

광주다움 통합돌봄 Q&A

Q)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A) ▲기존 돌봄망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시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마다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A)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몇 가지 신설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행정이 나서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1: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련의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임.

Q)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첫째,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됨.

※ 단, 서비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전액지원 ~ 전액 본인부담

둘째, 시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마다 일일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1660-2642, 2023년 4월 1일 개통)을 신설함.

※ (돌봄콜 절차) 시민 돌봄콜 전화 ⇨ 區 기초상담 ⇨ 洞 사례관리 담당자 현장방문

셋째, 돌봄 사각지대 우려 대상에 선제적으로 ‘의무방문’ 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내는 노력을 펼치게 됨.

※ (의무방문 대상)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자(1~4등급) / 심한 장애인 / 청년·장년 1인가구 기초수급자 / 타 동에서 광주+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다가 전입한 사람 / 복지사각지대 우려자 등등 연간 1만명 예상

넷째, 기존망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13종)를 신설하여 기존 돌봄제도에서 부족한 서비스 시간, 대상, 종류를 확충함.

※ (광주+돌봄) ① 일상생활지원, ② 식사지원, ③ 병원·관공서 동행지원, ④ 방문진료 등 건강지원, ⑤ 안전지원, ⑥ 간단수리·방역 등 주거편의, ⑦ 일시보호

다섯째, 위기상황에 바로 파견하는 ‘긴급돌봄’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하고자 함.

* (긴급돌봄 사례)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 코로나19 확진, 폭력성향, 단시간, 장거리, 복합적 고난이도 사례 등

Q) 기존 돌봄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가?

A)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여

첫째,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제도를 연계하고

둘째, 기존 돌봄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로 메우고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 기존돌봄이나 7대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을 즉시 지원하게 되므로

중복 지원을 지양할 수 있음.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A)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임.

주민등록 말소자나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도 시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함.

A) 현장방문 <돌봄필요도 평가>를 통해 ①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면서도 ②돌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며 ③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지원하게 됨.

Q)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돌봄콜** 단일창구로 신청할 수 있음. 돌봄콜은 전화 1660-2642,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의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로 정함.

A) 직접 신청하러 나오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자(1~4등급), 심한 장애인, 청년·장년 1인가구 기초수급자,

타 동에서 광주+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다가 전입한 사람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나설 계획임.

Q) 틈새를 메우기 위해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무엇인가?

- A) ▲취사·청소·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진료 등 건강지원 ▲AI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 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일시보호 지원이 있음.

특히 **병원동행**은 병원 내 진료, 검사, 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방문진료**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와병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여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및 약물처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Q) 광주+돌봄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 A)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 정도를 확인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대상으로 결정함.

※ (서비스 절차) 시민 신청 ⇨ 동 현장방문, 돌봄계획 수립 ⇨ 민간·공공 광주+돌봄 지원

Q)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는가?

A)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120% 이하 70% 지원^{30% 본인부담}, 160% 이하 40% 지원^{60% 본인부담},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단, 지원받는 시민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1인당 15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내에서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함.

만약 지원한도를 초과하고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동과 구의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Q)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무료는 아니라는 말인가?

A) 그러함.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구 소득을 조사하여 90%이하는 무료, 초과자는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시민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됨.

Q) 위기상황에 즉시 파견하는 긴급돌봄은 무엇인가?

A)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데, 기존 돌봄이나 광주+돌봄을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하는 서비스임.

Q) 긴급돌봄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A) 광주*돌봄과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 위기상황과 돌봄이 필요 정도를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 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대상으로 결정함.

※ (서비스 절차) 시민 신청 ⇨ 동 현장방문, 돌봄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

Q)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는가?

A) 광주*돌봄과 마찬가지로 일정기준 이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시 말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자는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

긴급돌봄 서비스의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180만원이며, 긴급돌봄을 지원 받았더라도 광주*돌봄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다른 돌봄망을 연계 지원하게 됨. <끝>

(문의처)

시	복지정책과	613-3241~3244
동구	통합돌봄과	608-2422
서구	돌봄정책과	350-4839
남구	통합돌봄과	607-4071
북구	통합돌봄과	410-8254
광산구	통합돌봄과	960-3919

및 97개 동행정복지센터